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남원소방서 초도 방문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지난 8일 남원소방서를 초도 방문, 현장 소방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태풍 및 호우 대비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이 본부장은 양순주 남원시장으로부터 당면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소방서 운영 현황 및 현장 대응 능력을 직접 점검하고,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 소방서 보유장비 점검 및 숙달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등의 현장을 방문,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면서 “조직 내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소방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JB전북은행, 정읍시에 선물꾸러미 70박스 기탁

JB전북은행은 지난 8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무더위 탈출선물꾸러미 7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 전북은행 2지역본부 전상익 부행장, 김태석 정읍지점 지점장 국주만 정읍시청 지정장이 참석했다.

선물꾸러미는 무더운 여름철 지쳐있을 소외계층에 힘을 펴주기 위한 쿨매트, 여름용 이불, 선풍기로 구성됐다.

선물꾸러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무더운 여름에 어려운 이웃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나눔을 실천해주신 전북은행에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 예은노인복지센터, 지역네트워크 체계 구축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예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정태원)가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연계사업을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상관·소양 지역 16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께 마을 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에 따르면 예은노인복지센터는 지난 5~6월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양면 90여 명의 어르신들께 간단 집수리 사업(안전손잡이 설치, 전등교체, 방충망 수선 등)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3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비음산책 아침이 교육을 진행했다.

센터는 지난 4월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상호 협력 협약식을 체결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 현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청하면, ‘하소백련축제’ 준비 한창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9일 2층 회의실에서 7월 1차 이장회의를 열고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2회 하소백련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많은 면민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주민 환경 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많은 시민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청하면 미술대향 윷놀이 대회’를 위해, 마을별 윷놀이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추첨을 통한 대진표를 만드는 등 축제 준비에 한창인 모습을 보였다.

박주범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축제에 많은 면민들이 참여하고 청하면을 찾은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양유미 청하면장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이장단에서 면민에 대한 홍보와 주변 환경정비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청소년 정책 우리 손으로”

제1대 익산시 청소년의회 개원식… 청소년 의원 20명·내년 7월까지 정책 제안 등 활동

익산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선다.

익산시는 9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대 익산시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은 청소년 시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배지 수여와 개원 선서, 의원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제1대 익산시 청소년의회(의장 최승원)는 2025년 7월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책 제안 교육과 선진지 견학, 익산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 교실 등에 참여한다.

익산시 청소년 시의원은 20명으로 학교장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아 선정됐다. 의회 활동에 앞서 연령 강화를 위해 기초 교육에 참여하고 △환경행정 △문화예술 △교육복지 분야로 상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최승원 의장은 개원식에서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겠다”며 “이 자리에는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 청소년 권리관과 협력해 3년 동안 준비한 청소년의회의 첫 열매가 맺어져서 의미가 깊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 활동과 리더십 향상을 통해 익산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시 주천면 행복나눔봉사단 발대식

남원시 주천면(면장 김재하)은 9일,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 등을 도울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기초생활援助 지역간 일번지 행복나눔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나눔터는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로 지난 3월 준공했으며, 시설은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량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구를 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자원봉사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예정으로 초기 인원 25명으로 구성했으며,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와 손잡고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영양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역간일번지 행복나눔터는 7월 현재 주민의 건강과 문화복지활동으로 12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용자도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재가 노인 세대에 식사 배달

남원시는 거동 불편으로 기본 식생활이 어려운 재가 노인 세대에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1식 단가를 도에서 정한 5,000원에 시비 1,000원을 더하여 6,000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제공 대상 260명에서 전액 시비를 투입해 40명 추가, 총 300명에게 질 좋고 영양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 교체로 변경 소요 기간 발생하는 잔여분을 활용해 병원 퇴원, 사례관리 등으로 급급하게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자 7명에게 단기간 도시락을 제공 결식으로 인한 영양 결핍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볼봄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기에 투입으로 배달 및 인부를 확보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증,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르신들의 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반찬을 제공하여 입맛이 없는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든든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단, 삼례읍 주거개선 봉사활동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단(단장 권오체)이 삼례읍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 저洼지역인 가구를 찾아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원주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봉사단 회원 15여 명은 가구원이 모두 저洼지역인 한 가구를 찾아 집안에 쌓인 짐과 쓰레기를 치우고 세탁기를 구입하여 설치해주는 등 인적 물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해당 가구주는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어 청소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를 알게 된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단에서 흔쾌히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권오체 봉사단장은 “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대상자분이 깨끗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원옥 삼례읍장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봉사단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페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해당 가구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께하는 사람들을 봉사단은 회원수 15명으로 구성되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세대 등을 찾아 도배 및 장판 교체, 전등 교체, 연탄나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 남원시, 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남원시는 7월부터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돋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입원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가 병원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의료·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남원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현재 남원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4,443명으로, 시 인구의 5.8%를 차지, 사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방문 홍보 및 음면증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복지과 김영미 복지행정팀장은 “앞으로도 시에서는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동상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 개최

완주군 동상면이 9일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 23명을 새로 위촉하고 임원진으로 공동위원장에 인정식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연주 위원을 선으로 선출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동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게 된다.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는 민·관이 상호협력하여 지역복지 현상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연계·지원하며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정식 공동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믿고 맡겨주신만큼 동상면에 어려운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임경빈 민간위원장은 “제5기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현 강사(복지소통연구소 대표)는 지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였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진안군지사협·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진안군지사협회(공동위원장 전준성 군수), 민간 공동위원장 임경빈)가 9일 신약초마문에서 ‘잘 되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비롯하여 읍면협의체 민간위원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인을 모색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현 강사(복지소통연구소 대표)는 지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였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임경빈 민간위원장은 “진안군지사협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현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은숙 동상면장은 “제5기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을 함께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상전면 주민자치위, ‘여름 영화관’ 운영

진안군 상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기두)는 9일 상전면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면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전면 ‘여름 영화관’을 운영했다.

이날 영화관은 행정복지센터 주관으로 면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영화 <극단자작>을 상영했다.

또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어르신 및 주민들을 위해 팝콘 등 간식과 음료도 제공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안기두 위원장은 “주민 어르신들과 문화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발굴하여 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수 상전면장은 “한편의 영화로 면민이 모여 공감과 담소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앞장서서 상전면의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해주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